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73-5254 (사무실) 77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5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6.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 끊임 새 없이 이어져, 고요한 시간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둥대며 살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물결에 나무끼는 부평초처럼 우리 삶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진실하게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분을 행동의 토대로 삼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분주함 속에 살면서 우리 영혼은 초조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삶이 제 아무리 힘들어지라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내적인 평화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치유자요 화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약4:8	인도자
♠ 교 독 문	4. 시편8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임보람 선생 II. 한완식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482.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다함께
성경봉독	I. 고전11:20-34	인도자
	II. 막1:32-39	최숙화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아름다운 공동체	김재흥 목사
	II. 골방과 광장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같이	

헌신의 찬송 347.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한 중에 말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나고 빛 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겠습니다. 이기적인 허욕을 벗어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상처 입은 이들은 싸매 주고, 외로운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1남선교회 주최예배	2월 기도의 밤
설교 : 김기석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사	조관행 집사 구성실 장로	인도자 권혁순 집사

2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김 극 조병주 최숙화 백혜숙
	헌금위원	조병무 김준호 김인걸 유영남 송양진 박홍재

고백과 회개는 신성한 의무이다

<미안합니다>는 아마도 가장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진심에서 우러나 <미안합니다>는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형식적인 <미안합니다>는 소원한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말을 배운다. 그것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때로는 정말로 뉘우치는 마음이 없더라도, 그렇게 말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어른들도 이런 경우가 있다.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면서도, 재빨리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문제를 간단히 처리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절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자존심과 오만, 권력과 지위가 깊이 있는 정신이나 인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오직 진실하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해야만 잘못을 용서받고 행동을 고칠 수 있다.

모든 종교는 회개를 허락한다. 예언자 시대부터 예수의 희생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인 의식으로만 회개해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진정한 회개와 함께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하지만 간통이나 폭력으로 배우자를 괴롭히면서 죄의식은 느끼지만, 여전히 그 행동을 계속 또는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 사람들은 뉘우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로 간통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나도 그리 마음 편하지는 않았어>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자신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에 동정을 구하면서 <두 연인 사이에서 마음 아파서> 어쩔 줄 모른다. 오랜 세월 함께 했기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 새로운 매력으로 강한 욕망을 일으키는 새로운 연인 사이에서 심각한 마음의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그런 감정적 고통을 겪는 것만으로 용서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에게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물론 배우자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와 함께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가톨릭의 <고해성사> 의식은 고대 성서의 규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민5:6-7). 고백이란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

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고백은 중간에서 참회하도록 인도하는 성직자의 도움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진다.

성직자를 통한 하나님에게 직접 고하든, 고백은 신성한 의무이다. 고백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잘못된 방법을 고치고 개선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좀더 근접하도록 도와준다. 고백이란 회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를 포함한다. 하나는 저지른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잘못을 절대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랍비들은 예로부터 진심으로 회개하는 힘은 너무나 위대한 것이어서 심지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전세계가 그를 토해 용서 받는다고 주장한다.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위선적인 고백과 회개는 하나님의 이름과 자애를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용서를 보장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마피아 영화에서 살인자가 고해소에 들어가서 성직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나서는, 다음날 또 다시 <조직의 사업>을 계속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은가? 위선적인 고백은 쓸모 없으며, 신성 모독으로 여겨진다. <<가톨릭 백과사전>>에는 <신성 모독적인 고백이란, 죄를 회개했다가 고의로 다시 죄를 짓는 행위이다.....그런 경우, 고해성사는 무효이며 용서도 효력이 없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만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다(말3:7).

하나님이 한 약속은 상호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맹세의 본을 보여주었다. 노아의 대홍수 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다시는 자연 재해로 <세상을 모두 쓸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창9:11-14). 더 성스러운 맹세는 아브라함이 기꺼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치려 할 때 이루어졌다(창22:15-17).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영원한 상징적인 증거를 남긴다는 것, 스스로에게 강조하여 진지하게 맹세한다는 것, 또 하나님은 계약을 상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믿음직한 권위가 있다.

—로라 슬레징어·스튜어트 보젤, <<십계명에서 배우는 인생>> 중에서

나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조지 베브리 쉐아(George B. Shea)라는 복음 성가 가수의 간증이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그는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가 들려준 저음의 바리톤은 방송을 통해 전 미국 국민에게 울려 퍼졌고, 노래에 매료된 사람들은 그에게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갑자기 그는 유명 스타가 되었고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는 계약제의를 들어왔다. 앞으로 그의 인생은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웬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 왔다. 그래서 그는 머리 숙여 기도했다. 그가 기도하던 시간에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조그마한 쪽지를 주었다. 종이에에는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성시가 쓰여 있었다. 그는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멜로디를 종이에 써 내려갔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그가 이 찬양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냈다. 박수가 끝난 후 그가 남긴 한 마디는 모든 사람들을 숙연케 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최인환 이성운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김용진 박효선 오진훈 노순옥 장성호
 박홍엽 김희진 박홍재 방 민 김기석 김희우 신윤정 왕성환 강순배
 김지호 김지윤 최미선 최인환 김애경 박성수

월정헌금:

윤성종 김윤정 이재구 황선희 문인옥 전영규 김경수 김수진 김승현
 최철수 곽권희 이호원 이은자

감사헌금:

박병구 김필순 윤미경 김성수 문금석 문복순 김지윤 김용진 박효선
 왕성환 강순배 최인환 김중수 장혜란 장미란

생일감사헌금: 장민숙 백승민 구도헌금: 김기석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속 회	오 송 경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임 정 자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애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김 경 수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이 갑 재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이 봉 옥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이 명 희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정 현 주
나 사 렷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김 윤 정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속장·인도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2. **오후집회** : 제1남선교회 주최예배입니다.
3. **교육부모임** : 오후 집회 후에 청년부실에서 상반기 교사모임이 있습니다. 올해의 교육계획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4. **기도의 밤** : 2월 8일(수) 오후 7시 30분에 2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5. **청년부 집회** : 다음 주일부터 오후 2시에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담임목사와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6. **지방회** : 중구용산지방 지방회가 2월 9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7. **임원친목회** : 다음 주일(12일) 오후 2시에 신임원 환영회를 겸한 임원친목회가 친교실에서 열립니다(주관/제3남선교회).
8. **별세** : 지난 2월 1일 조동길 집사님, 2일 오현정 집사님 어머니 이한영 권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9. **신앙실천** :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십시오.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식당 봉사 : 가나안 속

* 헌화 : 정두리 권사 (생일 감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